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미곡농가와 양돈농가 윈-윈 전략 세웠다”

-미곡농가와 양돈농가 사상 처음
공동 액비이용 농업정책 제안

-양돈농가 효율적 분뇨처리, 미곡농
가 친환경 쌀 생산 가능

농림부가 공모하는 농업정책 '우리농업 희망찾기'에 우리 협회는 4월 30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미곡농가와 양돈농가가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구축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리 협회는 제안서에 농지제도 개선, 영리 목적의 액비유통센터 설립 유도, 대단위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에 의한 분뇨 살포 용이성 도모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농지제도 개선'은 지금까지 축산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대상으로, 우리 협회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양 단체는 농가의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의 목적이 식량 생산과 농업 생산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축사를 설치함으로써 축사에서 발생

한 액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농토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액비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도입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며, 액비유통센터에 책임을 부여해 양질의 액비를 생산·관리하고, 액비와 연계한 브랜드 쌀 생산을 도모하는 등 영리 목적의 액비유통센터의 올바른 정착을 요구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 사용 친환경 쌀 브랜드화 및 액비살포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50만평 이상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분뇨 살포량과 효과를 사전에 조사하는 등 대단위 친환경 농업지구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해양배출량 감축은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되어야”

-향후 5년간 해양배출량 현수준 유지 등 요구

해양수산부가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별다른 대책도 없이 마련한 해양배출물량 감축방침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

하고 나섰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5월 13일 개최된 '친환경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해양배출량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7년간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60%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5.3%를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 해양보전과 유정석 과장은 “향후 해양배출량 감축 계획은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올해 5.3% 해양배출 감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배출이 가축분뇨 처리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업계는 “사전 협의나 이와 관련 별다른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해수부의 해양배출량 감축 강행은 결국 양돈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게 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협회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박창식 이사, 김동성 전무는 해양배출량 감소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중인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정책 추진 전에 양축농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은 해양배출량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5년 후부터 15년까지 해양배출량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며, 현행 24%인 가축분뇨 해양투기 배출비율을 유지해 주고, '96의정서 가입을 최대한 지연해 줄 것 등을 강력 요청했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저널리스트 프로그램' 개최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 위원회가 올해 개최되는 박람회를 홍보해 참관객과 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업체의 참가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명도가 높은 축산 전문 해외 잡지사 기자들 1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 5월 9일(월)~12일(목) 박람회 주요 국내 참가업체 및 기관을 탐방하고 박람회 장소인 대전무역전시관을 참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널리스트들은 일본, 태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9개국의 축산관련 유명 잡지사 기자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4page 참조>

긴급 회장단 및 도협의회장 연석회의 개최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제 추진, 1검정소 매각 논의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는 4월 18일 대전에서 긴급 회장단 및 도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2005년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행정기관과 연계해 운용키로 결정하고, 충북 음성외의 SEW사업장 매각과 제1검정소 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1검정소 이전 부지 선정 및 매입 등에 관한 사항은 '1검정소 이전 추진위원회'에 위임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본격 운영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계획 확정

돼지고기 유통투명화를 위한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제가 본격 운영된다.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유통감시에 들어갔다.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의 둔갑 판매를 억제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2005년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의 농

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받은 9개 우리 협회 도협의회장을 포함한 각 지역 지부장 등 3인이 해당 지역 관내 돼지고기 판매점의 부정 유통을 감시하게 되며, 전국 도청의 축산과 유통계 및 품관원과 연계해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국 9개 도협의회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9개 도협의회장 포함 3인의 유통감시원을 지정하고, 도청, 품관원의 활동 일정 파악 후 감시일정을 수립해 도내 유통감시원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협회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제주·경북 등 2개 도협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초경에 시범사업 보고 및 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의 감시원 3명과 품관원 등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등이 한 달에 5일씩 유통현장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품관원,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 적극 협조 약속

우리 협회가 추진중인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품관원은 우리 협회가 5월 4일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시 우리 협회 유통감시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앞으로 품관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에 대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활동시 가급적 관내 우리 협회 소속 유통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추

진하는 등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앞으로 품관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와 협의의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상호협력 물꼬 터

-농진청, 농업기술센터내 지부 사무실 입주 긍정 검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협회 지부가 상호 협력의 물꼬를 튼다.

최근 우리 협회가 농촌진흥청장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과 기술교류 증진 등을 위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내에 지부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도 민·관 상호협력과 기술교류 증진 및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다른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각 지역별로 입주를 희망하는 우리 협회 지부가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우리 협회 경기 고양지부, 강원 철원지부, 충남 아산지부, 전북 익산지부, 전남 고흥지부, 경북 영천지부, 경북 봉화지부, 경남 창원지부 등 9개 지부가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 생산자 단체와 정부 농업기술센

터간 민·관 상호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산불진화에 노력한 장병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이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 농림부를 방문하고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만나 양양지역 산불진화에 노력한 장병들을 격려해 달라며 돼지고기 1,000kg(100마리분 정육)을 전달함에 따라, 농림부는 강원도 양양지역 군부대에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농림부 이명수 차관은 4월 20일(수) 오후 2시 강원도 양양 소재 8군단 사령부를 찾아가 돼지고기 전·후지 등 1,000kg과 함께 산불진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요 제도 관련 개선작업 돌입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

우리 협회는 농지법 및 소득세법 등 주요 제도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협회는 4월 27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개

선위원회를 구성, 검토할 상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병모 우리 협회 부회장 등 위원회 실무자들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사료관리법, 소득세법, 종돈 검정 업무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농지법과 관련해 축산 과밀지역에 산재한 축사를 농지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친환경 경농업과 친환경축산을 서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축산업 소득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소득금액별 소득세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 '큰 호응'

우리 협회가 2005년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의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가 전국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양돈인이 각종 보상, 제도, 민원 등 문제점들에 당면했을 때 이에 대한 조언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의 개설 취지에 맞게 상담주문이 꾸준히 밀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양돈농가들의 상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상담 요구에 바로 답변해 주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 협회는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해 양돈농가의 상담요구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상담센터가 양돈농가 현안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경영안정 유도, 애로사항 수렴, 비현실적 제도 및 규제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해 양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장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02)571-9753 양돈농가 상담센터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충남도협, KISTOCK 2005 참여 방안 협의

충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남성현)는 오는 6월과 8월에 각각 개최되는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와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등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충남도협의회는 5월 10일(화) 우리 협회 이병모 부회장, 김건태 명예회장, 방역본부 강정원 사무국장, 도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 월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 한편 도협의회는 오는 8월말에 열리는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와 관련해 돼지고기 홍보와 관련한 업무 및 참가 내용을 협의하면서 박람회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으며, 10월에는 충남도협의회 체육 행사도 개최하는 등 도협의회 진행 계획도 논의했다.

가평지부 설립



신성균 가평지부장 최근 우리 협회 가평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승인요청을 해왔다.

우리 협회는 이에 따라 공식 절차과정을 거쳐 지부 설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신안지회 설립



양인석 신안지회장 최근 우리 협회 신안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회설립을 요청해 왔다.

창립총회 결과, 신안지회장에는 양진석씨가, 사무국장에는 마진우씨가 선출되었다. 사무실은 목포무안신안 축협 내에 두기로 했다.

여수지회 설립



방원빈 여수지회장 최근 우리 협회 여수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여수지회장으로 방원빈씨를, 사무국장으로는 김윤곤씨를 선출했다.

방원빈 여수지회장은 현재 여수시 울촌면에서 대성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신임 정읍지부장에 김공수씨



김공수 정읍지부장 최근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과의 유상업 정읍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영열 회장은 김동일 전임 지부장에게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고, 김공수 신임 지부장에게 지부장 인준서를 전달했다.

경주지부, 최근 양돈현안 설명회 열어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은 4월 29일(금)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양돈 교육 및 정부 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한 설명회'에서 돈사환경 및 돼지 사육 단계별 적정사육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배만용 지부장의 '인사 및 돈사환경에 대한 설명' 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의 방향' 등 양돈시책, '중국발전과 한국양돈'이라는 주제의 강좌와 정현규 박사의 'PMWS 예방과 소독' 주제의 강의를 이어졌다.

한국양돈연수원 조동주 원장은 '중국발전과 한국양돈' 강의를 통해 아시아 축산시대를 대비한 한국양돈가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현주 수의사는 '양돈장 HACCP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천지부, 고품질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연회 개최

-5월 4일 도드람양돈조합 공동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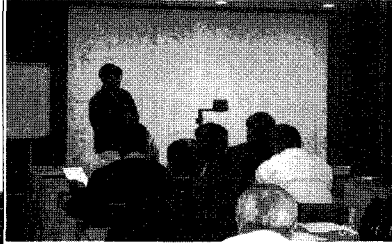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연회가 5월 4일 오전 11시 경기 이천지역의 한 논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 이천지부(지부장 정종국)와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진길부)은 공동으로 이천지역 양돈농가와 경종농가 및 축산전문지 기자 등이 바라보는 가운데 완전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시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3년간 계속 액비를 살포해 벼농사를 해왔으며, 화학비료를 사용했던 때보다 벼 작황이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종국 이천지부장(분회 감사)은 “논 300평에 액비는 10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천지역 경종농가가 액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액비가 부족해 공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액비저장탱크 등 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분뇨 정화처리 시설과 함께 액비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지부,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자 모임 결성

우리 협회 이천지부 회원농가



30여명은 4월 19일 도드람조합 회의실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앞으로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종국 이천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이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이천 시민의 건강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한 식문화 정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순지부, 청정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 개최



화순지부(지부장 정성국)는 지난 4월 22일 2005년 화순군 고인돌 축제에 맞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에는 화순군민들이 다수 참여해 돼지고기를 시식하고, 돼지고기의 새로운 맛을 경험했다.

화순지부는 이번 시식회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여주지부, 봄철 화재 및 질병 예방에 만전을

여주지부(지부장 김건호)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주의해 화재 예방 및 돼지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주지부는 4월 22일 (금)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4월 월례회의와 함께 저장액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저장액비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경청하고 돌아갔다.

함안지부, “삼겹살 치중 소비자 입맛 바꾼다”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는 4월 16일 함안지역에서 가장 큰 군민행사인 ‘제19회 아라제’ 행사에 맞춰 수출부위육인 뒷다리 본인행을 구입해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방부위육 소비촉진 무료시식회’를 열었다.

함안지부는 함안공설운동장 아라제 행사장 내에서 실시된 이번 시식회가 삼겹살 소비에 치중된 소비자들의 입맛을 바꾸는데 기여했

다고 밝히고, 국산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도 함께 홍보했다고 평가했다.

구례지부, 돈육 저지방부위 소비 유도 시식회 열어

구례지부(지부장 오성표)는 5월 8일 구례군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의 맛을 홍보했다.

구례지부는 “이번 시식회 행사가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만큼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시식하고 저지방부위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가 돼 돼지고기 음식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지부, 돈육 무료시식회로 양돈 이미지 제고



안동지부(지부장 김건년)는 4월 17일(일) 안동탈춤공원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제1회 안동전국마라톤대회를 맞이해 개최한 이번 무료시식회 행사에서는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마라토너는 물론 많은 안동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새

영남축산진흥회장에 조옥봉 대구지부장



조 옥 봉
대구지부장

(사)영남축산진흥회 신임 회장에 조옥봉 상임부회장(우리 협회 대구지부장)이 추대됐다. 4월 22일 영남

축산진흥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故 류종래 회장의 뒤를 이어 조옥봉 부회장을 추대함으로써, 조옥봉 신임 회장은 류종래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진흥회를 끌어가게 된다.

로운 맛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안동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양돈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는 양돈인의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했다고 평가받았다.

영암지부, 돈육 저지방부위 맛 홍보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는 지난 4월 2일(토)~5일(화) 나흘간 영암왕인문화유적지 등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2005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에 맞춰 열린 이번 시식회에는 특히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요리 시식회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새로운 맛을 전달했다. 영암지부는 축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해 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남제주지부, 청정 돼지고기 이미지 제고



남제주지부(지부장 양정윤)는 4월 17일(일) 제4회 대정읍 직장인 축구대회 행사에 맞춰 대정문화체육센터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남제주지부는 행사장에 약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청정 돼지고기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돼지고기를 홍보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유도하는데 기여했다. **양돈**